

조국통일의 길은 신념과 의지로 가는 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향한 거레의 힘찬 진군은 2022년 이해에도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2022년에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어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이 땅에 통일강국을 안아오려는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하다.

조국통일의 길은 신념과 의지로 가는 성스러운 길이다.

이 조국통일위업이다. 통일이 없으면 민족의 삶도, 이 땅의 밝은 미래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겨레는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나 같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은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가야 하는 간고한 투쟁의 려정이다.

하나 통일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길이기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승없이 자기를 바치는것을 인생

의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겨온 이 나라의 장한 아들딸들이다.

신념과 의지로 헤쳐가는 통일의 길, 그것은 바로 조선은 지난날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하나이라는 확고한 통일신념이며 후대들에게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굳센 의지와 결심이다.

《매일과 같이 들이대는 고문에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졌다. 교형리들은 《전향한다.》는 한마디만 하면 먹을것도 입울것도 주고 감옥에서 나가 인간다운 생

활을 누릴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곧 신념을 버리는것으로 되기때문이었다.》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도 끝까지 통일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한 통일애국투사가 남긴 말이다.

그렇다. 조국통일은 곧 신념과 의지로 하는 성스러운 위업이기때문에 어머니조국과 겨레는 이런 장한 아들딸들을 더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하는것이다.

수십년세월 감옥에서 갓은 고

초를 다 겪으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이 세상이다. 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떠받들리우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것도 바로 이때문이 아니겠는가.

신념은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핵이다.

신념이 없는 인간의 삶이 한 톨의 가치도 없는 백해무익한 삶이라면 신념과 의지 강인한 인간의 삶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인 것이다.

신념은 자신이 체득한 사상과 견해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강렬한 지향이다.

심장으로 공감하는 사상과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갈수 없는것이 바로 조국통일의 길이다.

오늘 조국통일의 길에서 우리 겨레가 간직하여야 할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이 있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이다.

우리 겨레는 지난 10년간의 조국통일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조국과 민

족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며 투철한 신념과 철의 의지로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외세의 압제와 적대시책등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단방에 펼쳐주시는분이다.

그이의 탁월한 평도를 따라야 우리 민족의 존엄도 지켜지고 강성번영의 앞길도 열리며 통일도 온다.

바로 이런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길이 아무리 멀고 시련에 찬 길이라 해도 강한 신념과 의지만 지니면 뚝지 못할 난관도 넘지 못할 시련도 없다.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진짜 애국자가 되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자!

이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펼쳐나신 해내외의 온 겨레가 지녀야 할 신념과 의지이다.

본사기자 박철 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1999년에 들어와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다.

이러한 첨예한 정세속에서 1999년 2월 3일 평양에서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진행되었다.

연합회의에서는 1999년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충실히 리행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갈것을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호소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려는 일념으로부터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련합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였다.

이 투쟁의 일환으로 1999년 3월초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과 남조선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로총) 대표들사이에서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이 있었다. 또한 6월 1일에는 문익환목사의 생일을 계기로 중국의 룡정에서 《문익환목사회고모임》이, 6월 26일에는 《김구선생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밖에 3월과 5월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제7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와 제9차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가, 6월에는 평양과 서울, 도교사이에서 문건교환방식으로 제9차 범청학련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6.10북, 남, 해외청년학생실무회담이, 8월 5일에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민족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련합기구는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더욱 고조되었다.

1999년 정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제10차 8.15범민족대회가 북과 남, 해외 3자련대를 더욱 강화하는 대회가 되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었다.

특히 행사의 명칭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략칭 범민족통일대축전)로 정하도록 해주심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뿐 아니라 《전국련합》, 민주로총과 같은 범민련밖의 단체대표들도 이 대회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1999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과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범민족통일대축전은 조국통일3대원칙기념탑착공식,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3자련합대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북, 남, 해외통일예술축전 및 체육행사, 제4차 범청학련총회, 조국통일상수여식, 북남로동자축구경기, 범청학련통일통구경기, 북, 남, 해외대표들의 연대연합모임 등 다채롭고 특색있는 정치, 문화, 체육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8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 3자련합대회에서 북측과 남측, 해외측을 대표하여 연설한 연설자들은 3자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하여 통일의 새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자 호소하였다.

이어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함으로써 삼천리강도우에 부강번영하는 련방제통일국가를 일떠세울것을 다짐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전례없이 성대하게 진행된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는 3자련대가 빛나게 실현된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서 겨레의 통일열기를 급격히 고조시키고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할 우리 민족의 통일열의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역사적인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간 조완구선생은 김구, 김규식선생들과 함께 통일축전협의의 역할을 하였다.

선생은 통일축전협의회의의 상무위원으로서 《단정》반대, 미군철거, 평화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조완구선생은 친척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의 교양을 방문했던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고 그의 자주통일사상을 선전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남녘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가슴속에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조완구선생은 김구선생과 함께 《국회》내의 인사들과 련계를 짓고 그들을 통일운동에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주동적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7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장파》로 불리우는 련합세력을 형성하여 미군철거, 리승만의 《북진통일》반대, 평화통일축전의 구호밑에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선생은 외세와 그 주구들의 책동으로 암살당한 김구선생의 장의식에 참가한 수많은 군중들앞에서 《미군나가라!》, 《리승만정권 타

민족대단결의 중요한 전제 - 민족적공동성

공통된 민족적성리와 감정으로 뭉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과 간섭, 민족분열책동으로 70여년간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분열의 뼈아픈 고통을 당해오고있다.

그리고 민족분열과 그 장기화로 북과 남에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가 아무 리 크다고 하여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동성보다 더 클수 없다.

더우기 민족을 떠난 계급과 계층이 있을수 없고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는 민족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수 없는것만큼 어느 계급과 계층도 자기의 리해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보다 앞에 내세울수 없다.

우리 겨레의 민족적공동성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된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남달리 애국심이 강하고 자주정신이 높은 민족으로 존엄을 떨쳐왔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 주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페이지를 새긴 1999년

량수 남

고 뜻깊게 회억하시며 그의 이름을 통일전선상에 새겨넣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오늘도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의 세계속에 천연화강석을 닮아 세운 통일전선탑에는 조완구선생의 이름이 길이 새겨져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다.

통일을 불러

련북애국의 길에서 빛나는 삶 (4)

선생은 운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는 글들을 써가는데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선생은 손끝으로가 아니라 심장이 뛰여 내친걸음이라고 임버처럼 외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도를 선전하는 글을 내는 한편 민족문화유산에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력사문헌들을 번역출판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정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생말년을 련북애국의 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치던 조완구선생이 73살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의식을 사회장으로 치르도록 배려하여 주시었다.

무릇 흘러가는 세월의 같고

으로 인민군대의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배라를 찍어냈으며 서울거리의 중심가인 종로연도에 나와 열광적으로 만세를 웨치면서 인민군장병들에게 환영인쇄물을 안겨주었다.

선생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어서 김일성장군님 계신 곳으로 가서 련공애국으로 전정승리에 기여하고 장군님의 어지신 정치아래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남조선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을 불러일으키며 북행길의 앞장에 섰다.

주체39(1950)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 도착한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정계인사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돌려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시수송이 매우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와 특별렬차까지 내어 남조선정계인사들이 안전하게 후퇴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돌봐주시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조완구선생에게 있어서 애국의 삶을 꽃피워나가도록 하는 자양분이었다.

선생은 비록 로년기의 몸이었지만 위대한 어버이의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하였다.

피속에 모든것이 묻혀 잊혀지기마련이다.

하나 떠나간 애국인사를 잊지 못하시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으로 빛내어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 조완구선생의 애국적삶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가 애국렬사릉에서 영생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서는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 주시었다.

주체78(1989)년 10월 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0여년전에 있는 4월남북련석회의지도부 성원들의 협의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속셈에 통일전선탑을 세우고 그 비문에 협의참가자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속셈협의회 참가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듬으시다가 조완구선생도 그날 회의에 참가하였다고, 그는 키가 작고마하고 나이가 많았다고

본사기자

